

지난해 광주 수출 증가율 12.6%…전국 특·광역시 중 1위

175억2000만 달러 달성…반도체 40% 급등·자동차 역대 최대 실적
친환경차 비중 대폭 확대·수출 시장 다변화…‘양적·질적’ 동반 성장

광주 지역 수출이 지난해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확실한 ‘투톱’ 엔진을 장착하고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의 ‘2025년 지자체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지역 수출액은 총 175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적(155억 5000만 달러) 대비

12.6%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성장률은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광주에 이어 대전(9.1%), 대구(1.8%), 인천(1%), 서울(0.5%) 등이 뒤를 이었으나 광주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에 성공했다.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것은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였다.

광주 제조업의 빼대인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75

억 1000만 달러여치를 해외에 내다 팔며 전년 대비 9.1% 성장,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단순히 물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차량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출 단가 상승을 동반한 ‘질적 성장’까지 이뤄냈다는 평가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분야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5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새 무려 40.2%나 급증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한 데다 지역 내 패키징(후공정)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수출 시장 다변화도 눈에 띈다. 반도체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와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전체 수출액은 0.8% 소폭 감소했으나, 주력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4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 내 생산 활력을 보여주는 수입 지표도 양호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수입액은 8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특히 수입 품목의 88.4%가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부품 및 원자재)로 채워지는 등 수출 호조에 따른 지역 공장 가동률 상승이 수입 증가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를 보였다.

시는 올해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와 AI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수출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넓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기반 ‘입지전적 건설인’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별세

대우건설 인수 초대형 건설사 키워
광주상의 회장 지역경제 발전 기여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에도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왔다. 대형 건설사 인수로 재계 순위 20위권까지 그룹을 성장시키면서도 무리한 사업 확장 대신 단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고인은 기업 경영 외에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같은 공로로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70회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공로상, 같은 해 광주광역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 평소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온 인물로, 내부에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아 왔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안양임씨와 아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 정원철 시티건설 회장, 딸 정향미씨, 사위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이 있다. 빈소는 광주시 서구 매월동 VIP장례타운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5일 오전 7시다. 화순 개천사에 임시 안장된 뒤 장지는 유가족 뜻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전남 1월 물가 상승폭 둔화…각각 1.8%·2.1% 상승

정부 먹거리 중심 안정 노력 영향

광주·전남지역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각각 1.8%, 2.1%를 기록했다.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1.4%) 이후 5개월만으로 새해 들어 정부의 먹거리 중심 물가 안정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4로 전년 동월(115.94) 대비 1.8% 상승했다.

지역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120.69로 전년 동월보다 1.8% 올랐다. 특히 식

품 생활물가지수가 2.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식품에서는 신선어개(생선·해산물)와 신선과실지수가 각각 6.9%, 6.6% 올랐고, 신선채소는 8.7%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에서는 사과(20.9%), 고등어(17.5%), 쌀(16.6%) 등 먹거리와 상수도료(8.0%), 경유(2.6%) 에너지 분야 물가 상승폭이 컸다. 서비스에서는 유치원납입금(-88.5%), 국내여행비(-10.7%) 등의 물가가 하락했지만, 보험서비스료(15.3%), 택시료(12.4%), 공동주택관리비(3.5%) 등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6.62에서 119.11로 2.1% 올랐다.

전남 생활물가지수는 1년 새 2.2% 상승했는데,

식품 생활물가지수가 2.9% 올라 큰 상승폭을 보였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는데,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이 3.3%, 1.7%씩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고등어(17.2%), 쌀(16.0%), 기초화학품(8.2%), 돼지고기(5.8%) 등이 올랐고, 당근(-41.1%), 배(-30.5%), 굴(-14.7%), 자동차용LPG(-5.7%) 등이 내렸다.

서비스 물가는 2.4% 올랐으며, 집세(0.6%), 공공서비스(1.0%), 개인서비스(3.2%)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른 상승폭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험서비스료(15.3%), 주택관리비(2.6%), 진료비(2.0%) 등이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세관 기업·소상공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관세사가 기업 찾아 맞춤형 컨설팅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신청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 증빙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 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 절차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높이고 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 기업을 찾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본부세관과 FTA 포털 누리집 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수출 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김학선(앞줄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3일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뒤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지방청에서 세무서에 지시사항을 전달했던 방식을 탈피해 모든 관세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2026년 중점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쌍방향 소통 회의로 진행됐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JP모건, 코스피 목표치 6000~7500으로 상향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2일(현지시간)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의 경우 75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지난주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으며, 우리는 시장 동력을 재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JP모건은 코스피 기초 목

표치는 5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JP모건은 “2025년 9월 이후 상승분 대부분(당사 추정치 60%)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한 가운데 다른 시장 동력도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 정책 기조가 여전히 증시에 우호적이며, 국내적으로는 반도체 외에도 방산, 조선, 전력기기 등 중장기 산업 성장 섹터들이 20% 이상의 주당순이익(EPS)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코스피, 급락 충격 딛고 최고치 기록 경신

7% 가까이 급등 5300선 근접

코스피가 7% 가까이 급등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케빈 위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으로 촉발된 충격파를 흡수한 시장은 빠르게 회복에 나섰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3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률은 2020년 3월 24일 8.60% 이후 5년 10월 여 만에 최고치다.

지난 2일 위시 전 미 연준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과 은강 폭락 등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는 전장 대비 165.14포인트(3.34%) 오른 5114.81로 출발했다.

이후 장중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간 끝에 하락분을 만회한 것은 물론 전고점인 지난 30일 5224.36도 넘어섰다. 오전 9시 26분에는 코스피 200선물 지수가 5% 넘게 치솟으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34억원, 2조1695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나 홀로 2조9385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코스피200선 물시장에서도 3772억원 매수 우위였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며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반전됐다.

삼성전자는 11.37% 급등한 16만7500원, SK하이닉스는 9.28% 뛴 90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5.97포인트(4.19%) 오른 1144.33에 장을 마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288.08 (+338.41)
▲ 코스닥	1144.33 (+45.97)
▲ 금리 (국고채 3년)	3.189 (+0.037)
↓ 환율 (US D) 〈오후 4시 36분 기준〉	1442.70 (-21.60)



광주신세계 “힛트레디션 만나 보세요”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타트 르꼬끄 매장에서 고객이 트루퍼햇을 착용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블랙핑크 제니와 에스파 카리나 등 인기 아이돌 멤버들을 시작으로 MZ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힛트레디션’ 패션을 선보인다. 힛트레디션은 ‘힛하다(HIP)’와 ‘전통(Tradition)’이 더해진 신조어로 전통적인 상품을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한 패션을 뜻한다. 광주신세계 ‘르꼬끄 스포르티브’와 본관 6층 ‘에뜨와’ 매장에서는 군밤장수 모자로 유명한 트루퍼햇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10대 많은 광주 첨단·수완동, 지난해 편의점·커피숍 가장 많이 개업

전남 1순위 함평읍·순천 왕조1동

10대 인구가 많은 광주 수완동과 첨단지구에 편의점·커피전문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편의점이 가장 많이 생긴 동네는 광산구 첨단2동(5개), 광산구 수완동(5개), 동구 서남동(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완동과 첨단2동은 10대 인구가 가장 많은 동

네 중 하나다. 지난해 광주에서 15~19세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는 수완동(6840명)에 이어 신장동(2595명), 첨단2동(2427명), 봉선2동(2332명), 풍암동(2166명) 등 순이었다.

서남동과 수완동은 지난해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긴 동네에도 이름을 올렸다. 서남동과 수완동에는 각각 9개의 커피전문점이 생겼다. 커피전문점이 가장 많이 개업한 곳은 서구 치평동으로, 한 해 20곳이 문을 열었다.

20대 청년이 문을 자주 두드리는 체육도장(헬

스장)은 북구 신용동(3개), 광산구 어룡동·첨단2동(각 2개)에서 생겨났다.

지난해 전남에서 편의점이 가장 많이 생긴 읍·면·동은 함평군 함평읍(8개), 순천시 왕조1동(4개), 목포시 상동(3개) 등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은 순천시 왕조1동(18개), 해남군 해남읍(18개), 순천시 중앙동(16개) 등에 활발히 개업했다. 체육도장업은 여수시 문수동(2개), 무안군 일로읍(2개), 목포시 부흥동(1개) 등에서 새로 생겨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